

선한목자 예수수녀회-빠스또렐레

마리아의 동정 모성의 영적 여정

루이지 라자로 신부¹

월피정 자료

2017년 2월 4일 - 총본부-

제 2 부

마리아 안에서 교회 차원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마리아는 아들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아들을 교육하고, 아들의 말을 경청한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아들을 키우고 양성한다. 성자는 육화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역설적으로 마리아는 말씀을 경청하면서 말씀이 말을 하도록 말씀을 교육하였다. 아들은 정확하게 어머니가 하는 대로 닮고 유지하였다. 둘은 영적 공존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다. 아들은 전 존재로 자신의 어머니의 것이 된다. 어머니의 목소리, 어머니의 말을 자신의 공생활 동안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게세마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관찰해보면 흥미로운데, 당신 삶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신비한 하느님 뜻 앞에서 어머니의 상황과 같은 느낌을 주는 말을 한다.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마르 14,36).”는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와 같다.

혹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마태 11, 29)”라며 자기자신을 본받으라고 모범으로 내어줄 때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루카 1, 38).”라고 한 말을 기억하게 해준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마태 23,12).”라고 말할 때 마리아의 노래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다.”를 기억할 수 있다.

¹ 아체라 교구 사제, 로마 Centro Aletti 협력자, 영신 수련 지도 신부.

진복팔단은 마리아의 가시적인 모습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가? 혹은 “수난과 죽음”은 성령께서 마리아를 자기 자신에게서 나와 자신을 성자의 제자들에게 내어주도록 이끌어 주신 출애굽이지 않는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겪은 모든 사건들은 목가적이고 잔잔하며 평온한 무엇이 아니라, 그 반대로 마리아를 육신적인 모성에서 영적이고 교회적인 모성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영적 여정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마리아는 성전에 아들을 봉헌 할 때 이미 아들과 같은 방식의 시련에 내적으로 참여 할 정도로 아들의 수난에 깊이 동참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루카 2,35)”라는 말씀으로 십자가 아래서 군인이 아들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 어머니의 영혼도 같이 찌를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확실하고 비극적인 예언이다. 어머니만이 오로지 아들과 홀로 있었다. 마리아는 성전에서 단순하게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루카 2,23).”는 율법에 따른 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자신을 봉헌한 것이다.

여기서 바로 아들의 비소유화 혹은 마리아적 자기비움(케노시스)이라 규정할 수 있는 여정이 시작된다. 여기서 바로 마리아의 교회적 모성이 출발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사악을 봉헌할 때 비로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시작한 것과 같다(참조, 히브 11,17-19).

마리아에게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의 봉헌에서 출발하여 시메온의 예언이 설명해줄 영적 변모의 여정이 열린다. 복음들이 유일하게 전해주는 마리아에 연관된 소식들은 이집트 피신과 무죄한 아기들의 학살 그리고 나자렛에 돌아옴(참조 마태 2,13-23), 예수의 첫 번째 예루살렘 여행(참조 루카 2,41-52),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기 위하여 가파르나움으로 옮기기로 결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참조 마태 4,13) 모두 일련의 영적 시련의 사건들이다. 하느님께서서는 마리아를 평화롭게 하지 않으셨으나 그럼에도 마리아는 항상 평화로웠다(이냐시오 라랑가, 마리아의 침묵, 121).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마리아는 아들과 새로운 영적관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더 이상 자연적인 어머니로서 자신의 아들을 이끌 수 없고, 영적 모성의 여정으로 이끄는 아들을 따라가야 했다. 그 동안 마리아가 예수를 아들로써 가르쳤으나, 이제는 아들이 마리아를 어머니가 되도록 교육하는데, 더 이상 한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민중의 어머니가 되도록 교육한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생애와 연관이 있는 삶이었는지 볼 수 있다.

이는 영적 모성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이라면 누구든지 겪어야 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넘어감이다.

영의 새로움을 자신의 것으로 하려는 일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목적 계획들이 실패에 이르게 되는지 모른다. 매우 깊은 영적 체험도 이러한 자유가 없다면 씨가 마르고 만다.

마리아는 이제 신앙으로 어머니가 되기 시작한다.

하느님께서서는 마리아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변모하도록 요청하시는데, 아들과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모성적 사랑에서 신적 사랑으로의 변모다.

이는 바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요청된 것이다(요한 2,1-12). “여인이여,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말하는 아들 앞에서 이러한 넘어감을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엄마는 자신의 뜻이 아들의 뜻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전적으로 초월적임을 드러낸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느님의 시간을 끌어오고, 그분의 개입 방식을 조정하려 하고, 우리의 뜻을 하느님의 뜻으로 삼으려 하고, 우리의 계획을 하느님의 계획이 되게 하려 하는지 모른다. 우리의 생각을 하느님의 생각과 동일시하려고까지 한다. 우리가 하느님을 소유했다는 지나친 확신을 느낄 때 바로 우리는 무용한 종이였음을 자각하게 되는 순간이다(참조. 루카 17,10).

역할을 넘어서거나 없애는 친밀감은 늘 많은 혼란을 일으킨다.

마리아는 아들이 드러날 시간을 앞당기려고 생각하였으나 아들은 당신의 시간, 새로운 인류의 때를 인식하게 해주려 하였다. 성령께서는 바로 마리아와 마리아의 인성에서 출발하여 에와와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엮어가고 변화시켰다. 마음 속에서 한계 없이 퍼져가야 하는 보편적이고 종말론적인 모성이다.

마리아는 아들이 카파르나움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으러 갔을 때 이 모성을 승인 받는다. 예수님께 어머니가 밖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말을 전한 사람에게 시메온의 칼로 찔릴 것이라는 예언이 기억나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다(참조. 마르 3,22-25; 마태 12,46-50; 루카 8,19-21).”라는 대답을 준다. 혹은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 “선생님을 배었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루카 11,27).”라고 존경을 표현한 여인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루카 11,28).”라고 대답하신다.

영적 모성은 육정 모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일상화하도록 하는 성자를 통한 여정은 고통스러운 여정이다.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아들의 제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영적 모성의 기본적인 조건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 혹은 자신의 사목 활동을 종교적으로 수행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지는 않는다. 직원으로서 죄를 짓지 않는 한도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살지만, 성령의 활동에 움직여지고 동참하지는 않는다. 사목적 역할 혹은 계획에 집착은 종종 심리적이고 지적인 완벽주의, 엄격한 윤리, 신심주의와 영성주의를 생산할 뿐이어서 사랑의 결실은 아주 드물게 맺는다. 겨우 일할 뿐이지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지는 않는다.

영적인 풍요로움의 비결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데 있다. 하느님의 뜻은 영을 풍요롭게 해주고 새 창조, 즉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이끌어 준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이 영적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풍요로운 부성과 모성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육육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요한 1,12-13).”

영적 차원은 사람에게 있어 육신은 단지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는 종말론적 지평을 열어준다.

마리아의 여정은 끝이 난 것처럼 여겨지나 시메온의 예언에서 말한 칼날의 고통을 겪게 하는 또 하나의 여정이 있다.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제자라 불릴 수 없다.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에서 당신의 아들을 잃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신적 모성까지도 포기하도록 요청 받았다. 예수님은 또 다시 “여인이여”라는 호칭으로 어머니를 부르며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당신 제자의 어머니가 되어달라고 요청한다. 당신의 아들에서 아들의 아들로 아들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여인이여”라는 호칭으로 제자를 맡기며 더 깊은 의미를 받아들이라 한다. 보편적인 모성으로 개방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예수께서 니코데모에게 요청 한 바와 같이 높은 데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하느님을 위한 사랑으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무로 만들도록 요청하신다.

타르소의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 나는 다시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갈라 4,19).”라는 갈라티아인들에게 말할 때, 바로 이와 같이 움직인다.

마리아의 첫 번째 출산은 성령의 위로가 동반되었으나, 이제 고독의 고뇌가 따른다.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내치심을 예수님이 겪으신 것처럼 인간성의 축축한 흙 속에 누인 밀 씨로 체험한다. 성부께서 그리스도께 육적인 죽음을 요청하셨다면, 마리아에게는 영적인 죽음을 요청하셨다. 마리아는 무에서 교회의 어머니로 다시 태어났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형상을 포기하면서 인류의 어머니의 형상을 취하였다. 새로운 하와이다. 이제 마리아의 때이다. 자신의 보편적인 모성을 드러낼 때이다.

마리아는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고 교회로 살도록 요청 받았다. 이것이 바로 “그 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라는 구절의 뜻이다. 요한은 집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마리아는 끊임 없이 자신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신비적인 삶을 살도록 요청 받았다. 영적인 유목민이다.

마리아는 영보 때에 당신의 일들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예를 드렸으므로 당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성까지도 잃었다. 성모님은 항상 예측불가능한 하느님께 개방하였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마리아의 신부로서 동정성과 영적 모성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마리아는 말씀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하느님의 특별한 특전을 받았고, 모든 제자들을 위하여 짜인 신앙의 여정, 이 여정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신앙의 여정을 따르면서, “성령으로 재 탄생”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재 탄생은 종말론적이고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그분의 모성에 관한 언급이고, 성자께서는 마리아에게 당신 말씀의 경청을 통한 재탄생을 열었다.

마리아는 죄에 물들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에 충실하게 머물러야 했다. 마리아는 육적인 동정성에서 교회적인 동정성으로 넘어가야 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신앙을 고스란히 유지하는 것이다. 거짓 가르침들은 동정성을 상실하고 간음하게 만드는데 이는 신랑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단은 단순히 신앙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의 변화시키는 힘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위험이 있다. 우리는 전통에 따른 신앙의 유산을 통합적으로 우리 것이 되게 하고 전하는데 성공하는 만큼 교회의 동정성에 참여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 안에서 육적으로 동정인 사람들은 조금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믿는 이들은 영과 신앙의 동정으로 부름 받았다고 단언하였다(참조. 강화 213,7 PL38,1064).

이는 신앙 안에서, 우리 각자가 성령의 그늘아래 마리아에게 온 것을 반복할 수 있는 하느님과 갖는 친밀하고 깊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신앙이 “여기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나의 어머니이다(참조. 마르 3,33-35; 마태 12,46-50; 루카 8,19-21).”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말씀과 하느님의 뜻이 찾아오고 그 그늘을 드리우고, 신비롭게 풍요롭게 해주는 것에 내 맡겨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부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인류 안에 재탄생하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교회의 각 구성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되고 세상에 태어나도록 그리스도를 수태하고 출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성부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이는 그 어떤 신앙인보다도 더 “머리의 지체를 구성하는 믿는 이들의 교회를 태어나게 하는 사랑을 통하여 협력하는 것(거룩한 동정성 6)”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니로 성인은 마리아를 “복음적으로 사는 모든 이의 어머니”라고 부른다.

대 알베르토는 “교회는 매일 신앙을 통하여 경청하는 마음에 그리스도 자신을 낳는다.”고 주장하였다(묵시록 주해.7,12PL117,1081A).

믿는 우리 각자의 과제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에 형상을 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구원을 위하여 항상 새로운 길을 여는 생명을 낳는 신비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풍요롭게 하는 성령의 수태작용의 도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